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국장 : 이형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금요집회]

십자가의 승리

1부 예수 그리스도

1장 세상의 구원자가 나타나심

Ⅰ. 세상을 바꾸는 신령한 메시지

Ⅱ. 성육신하심은 역사적인 사실

Ⅲ. 성육신과 부활

2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Ⅰ. 그 이름 '예수'

Ⅱ. 그 이름 '그리스도'

3장 하늘나라의 메시지

Ⅰ. 예고하는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마 3:2). 그 부르짖음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였다(사 40:3). 그리고 그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단 강가에서 베풀었다(막 1:4). 그런데 요한이 베푼 세례 그 자체는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들에게 세례 예식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특이한 점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하자면, 그는 유대인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차이점을 없애버린 것이다.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에 대한 천국의 메시지를 예고한 세례 요한은 성경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 의해 예고된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였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 4:5~6).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러한 예언은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던 천사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눅 1:17).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음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마 17:10~12).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제사장들은 변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무지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으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시기로 하셨고,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사 40:3,4, 마 3:3). 결국 많은 자들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그들은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은 모든 예언자들보다 더 뛰어난 자였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마 11:9~11).

주님으로부터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은 세례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주님과 맺은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요 1:7~8).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인의 역할을 한 셈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언에는 언제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다(우리는 구약의 선자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대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라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30)라고 증거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이다.

세례 요한은 곧 오실 왕(王)을 예고하는 자였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미 400여 년 전에, 오실 왕을 예고할 사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리"(말 3:1). 여자가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 그는 진실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요, 자신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여 자격히 낮은 종임을 고백한 자였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요 1:26~27). 그러므로 그의 고백은 오늘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늘의 음성이기도 하다.

세례 요한은 비추는 등불이요 광야의 소리였다.

"요한은 켜서 비취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요 5:35).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요 1:23). 그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다. 그는 태초에 말씀이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음을 세상에 알리려는 소리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제공하여 준다.

우선 성경은 짐승들의 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천둥 소리를 기록하고 있는데(계 9:9, 요 3:8, 계 6:1), '소리'는 그 안에 말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의미없는 소음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외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의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공기의 진동일 뿐인 것이다. 두 번째로, 말씀은 소리로 표현되지 않아도 넉넉히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말로 표현되지 않고 글로 쓰여지지 않을지라도, 말씀은 그 내용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 소리로 표현되어지지 않아도 넉넉히 그 자체로 존재하신다(막 1:9~11). 그러므로 예수는 세례 요한이 없어도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말씀은 때로는 소리가 필요없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마 11:2~6). 세 번째로, 소리가 듣는 자의 귀를 울리고 난 후,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된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 이 세상에 먼저 왔고, 그의 뒤를 이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셨음에 비유된다(요 1:14~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말할 때에 순서를 뒤바꿔서 말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요 1:30). 이것은 '말씀' 이신 예수께서 '소리' 인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일단 말이 입술로 표현되면 소리는 곧이나고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말씀은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 심기워져서 그 안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원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관계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마친 후, 그는 옮겨지고 예수께서는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요 3:30, 마 4:17).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은 비단 노아의 시절 뿐만이 아니다(창 6:5). 오늘날에도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자아내게 하며(창 6:6), 노아시대의 홍수처럼, 영원한 심판을 초래하고 있다(요 12:31).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기록은 오늘날에도 도래할 심판에 대해 깨닫고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소멸되지 않는 참된 소망을 안겨준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노아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의 모든 가족에게 베풀어졌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창 7:1).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던 유월절에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셨던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출 12:3). 어디 그뿐이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들려지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수 2:18). 사실,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베풀어진 역사(歷史)는 오늘날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믿음없이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전혀 문제삼지 않는 이들에게 심각한 경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가족, 특히 자녀들에 대한 참된 각성을 필요로 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그의 수고는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각 가정의 부모들은 자신과 더불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해산의 수고'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와 어린양의 피를 바르던 문설주, 그리고 기생 라합이 창에 매달았던 붉은 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칠해진 집 안으로, 또는 붉은 줄이 매여진 집으로 모아들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각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4월 13일)에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드리는 '전(全)교인 연합가족예배'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하자. 각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자.

전(全)교인 연합가족예배

다음주일(4월 13일) 2 · 3부 예배

Sermon for next week

WALK LIKE JESUS (1 John 2:4~6)

"... whoever keeps His word, in him the love of God has truly been perfected. By this we know that we are in Him: the one who says he abides in Him ought himself to walk in the same manner as He walked."

In this world, Jesus Christ is the only perfect example of how to live God's way. Through the Scriptures, He shows us how to live a spiritual life and practice our faith. He shows us everything we need to follow God's will. "How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 in the path of sinners, nor sit in the seat of scoff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Psalm 1:1&2). Those who claim to be Christian, yet don't walk with Him, are liars. They don't know the truth, for the truth is not in them. If you don't walk with Jesus, you cannot be His disciple. Only those who walk with Him are His disciples (Christians).

Today is Palm Sunday, the day we remember Jesus entering Jerusalem to take the cross. As Christians, we have to go with Him; we have to follow Him. Jesus said,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own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others and sisters, yes, and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Lk. 14:26&27). So, do you still want to walk with Jesus Christ? God's word commands us to place our devotion to Christ first. Are you doing it? Does your daily life demonstrate this truth? If you love your family and friends more than Jesus Christ, you cannot be His disciple. "Whoever does not carry his own cross and come after Me cannot be My disciple" (Lk. 14:27). Amen. Your cross is the giving-up, letting go, and dying, in the aspect of following Jesus. Are you willing to sacrifice all to walk with Jesus? "So then, none of you can be My disciple who does not give up all his own possessions" (Lk. 14:33). Are you following Jesus Christ? Are you really pursuing eternal things, and loving Him more and more? My friends, you have to follow His pathway. Sometimes you lose everything. Can you be happy with giving-up all you have? Are you still willing to follow Him?

What is Jesus' guiding principle? His rule is to do what pleases His Father, "And He who sent Me is with Me; He has not left Me alone, for I always do the things that are pleasing to Him" (Jn. 8:29). Many people like to do whatever feels good or makes them happy.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Jesus and us. Jesus always brings glory to God. Do you do what you please or what is pleasing to God? The goal of Jesus' life is to make His Father happy. Is that the goal of your life? Don't be proud if you practice your faith, for you can always do more. Paul exhorts Christians, "that as you received from us instruction as to how you ought to walk and please God (just as you actually do walk), that you excel still more" (1 Thes. 4:1). Please read your Bible, open your heart, and come to Jesus. His life came from His Father; our life comes from Him.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he who eats Me, he also will live because of Me" (Jn. 6:57). We should do what pleases Jesus.

Jesus completely depended on His Father. His life shows us how He perfectly depended on God, and it teaches us how we must fully depend on Him. Jesus said,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he who abides in Me and I in him, he bears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n. 15:5). We have to depend totally on Jesus. Do you depend on Him fully? The Holy Spirit always works with Jesus (Lk. 4:18). His life shows us that wherever the Holy Spirit leads, He follows. He doesn't do His own will, only the Holy Spirit's. Do you follow the Holy Spirit's leading? Those who belong to Christ have the Holy Spirit, "and those who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However, you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indeed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But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Him" (Rom. 8:8~9). Are you allowing the Holy Spirit to control you? "But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He who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dwells in you" (Rom. 8:11). Amen. Do you desire life? Then walk like Jesus.

As Jesus approached jerusalem, He cried, but the crowd that surrounded Him shouted, "Hosanna, Hosanna." He went into Jerusalem and made the Lord's Supper, then He went to the Garden of Gethsemane, and finally He went to the hill to take the cross. All these things were His Father's will. When he entered Jerusalem, everyone welcomed Him. As time wore on most of the Israelites left Him. However, some did follow Him to crucify Him because they didn't walk with Him. Jesus wants you to follow Him to God's kingdom. You have to do what He does. You have to walk with Him, that way you can be His disciple. You have to give up everything you have. You have to learn His principle. You have to do what is pleasing to Him, not you. You have to listen to the Holy Spirit's voice. If you understand Him, then you will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only follow Him. For when you look to Jesus, you find eternal blessing. Walk with Christ from beginning to end, as Jesus walked with His Father from beginning to end, and the blessings of God will be yours eternally. Amen.

다음 주일 설교

예수님처럼 행하라 (요일 2:4~6)

"…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

김성관 목사

그리스도와 동행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삶을 살며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 1:1~2).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만이 그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6~27). 이래도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7). 아멘. 여러분의 십자가는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주며 죽음 가운데에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33).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그를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걸으신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때때로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예수께서 제시하신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의 원칙은 그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와 우리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십니까? 예수의 생애의 목적은 그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실천하였다고 그것으로 흡족해 하며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히 권면하였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살전 4:1). 예수께서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의 생애는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생명은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요 6:5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함

예수께서는 그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완전하게 의지하십니까? 거룩하신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눅 4:18). 그의 생애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이끄셨으며, 그는 항상 성령을 따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8~9). 여러분께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아멘. 생명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행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셨을 때, 그는 우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를 둘러싸고 "호산나 호산나"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의 동산에 올라가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모든 사람은 그를 환영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행하신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와 함께 걸어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을 주의 제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며, 주께서 걸으신 그 삶의 원칙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오직 그분만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발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십시오. 마치 예수께서 처음부터 끝날까지 하늘 아버지와 함께 걸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몽골에 가서도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할 때는 외선부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를 만난 간증을 할 때입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헤어져 한국에 왔지만 이곳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것이 더욱 소중하다' 는 고백을 할 때는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제목을 내 놓을 때면 몽골에 있는 우리 부인, 남편, 부모님, 아들, 딸들도 예수님을 꼭 믿고 교회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몽골에 두고 온 가족에게 물질적인 풍성함보다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세례식에서 4명의 몽골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은 3월 초에 몽골에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세례교육을 하면서, 특별히 몽골에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몽골에 가서도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며 무엇보다 몽골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몽골에 가서도 하나님 일을 꼭 할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봉고차를 사서 주님 일을 돕고 싶어요" 라며 더욱 확고한 자기 고백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돈을 벌었으니 큰 사업을 해서 집도 사고, 편안하게 가족들이랑 살고 싶다' 는 고백이 아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속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며,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로 고백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에도, 내가 섬기는 몽골인들의 심령에도 예수님만이 주인되길 소망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8).

(윤정훈 전도사)

젊음, 우리는 복음의 사도 4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간증과 각오들을 풀어놓는다. 그들의 간증과 각오들을 통해 복음의 소명을 다시 돌아보고 올 한 해의 단기선교를 계획해 보자.

작년 12월 27일부터 올 1월 4일까지 우즈벡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2년 전에 스리랑카에 다녀왔던 경험을 생각하며 '그때처럼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기도보다 성극준비, 찬양연습에 더 열중했었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서는 우리가 준비해 간 것들을 제대로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 그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그분 뿐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준비는 단지 인간적인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즈벡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고, 노방전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사방이 위험 지역이었다. 우리의 준비와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고 뜨겁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손길 아래 있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그곳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같이 다녀왔던 대원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즈벡키스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과 전자우편(E-mail)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이 은혜의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 선교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숙하고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이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도 전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다음번엔 주님만을 의지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싶다.

박경진 (대학부)

(선연주 기자)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17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주간충현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몽골 소아밧트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은 몽골 북쪽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목을 주업으로 하며 전통 가옥인 '겔' 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위해 띄엄띄엄 떨어져 살고 있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는데, 정말 그 믿음이 뿌리를 내려 잘 자라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다시 그 지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7월 말 정도에 갈 예정인데 그 때 쯤이면 해가 밤 10시까지 지지 않아 사역하기도 좋습니다.

2. 단기 선교를 가시면 주로 어떤 찬양을 하시는지요?

차를 타고 이동할 때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들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276장이나 259장을 많이 불렀는데, 선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뜨거운 햇살이나 먼지도 견디기 훨씬 쉬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3. 선교를 다녀온 후 어떤 개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요?

단기 선교 경건회 시간에 정말 회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격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이후 정말 내 안에서 참 기쁨이 넘치고 다시 믿음 안에 서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영환
10교구 1지역장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18

1. 지역 식구들에게 단기 선교를 어떻게 권면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단기 선교 가기를 주저하는 분들은 대체로 단기 선교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로 주저했던 분들이 저를 포함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명령에 순종하니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도 전할 수도 없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을 만나본 후, 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음에 무한히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고 있는 그곳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적극적이지 못한 신앙생활도 반성했습니다. 이런 간증으로 도전과 용기를 주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2.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정교를 믿는 나라인 불가리아의 프로브디브 및 다른 몇 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7월 8일부터 18일까지 단기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역장을 중심으로 지역 식구 8명과 교구내 타지역 1명 그리고 대학생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을 1명이나 2명 정도 더 지원받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10교구 4지역장

3. 단기 선교를 위한 주제로 삼고 싶은 성경 구절과 그 이유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 예수를 전하려 우리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과 말씀의 능력 붙들고 싸울 때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엄정섭 기자)

진정한 마음으로

김 윤 경 (고등부, 예본찬양대)

내가 예본 찬양대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 1년 3개월 동안 나는 찬양의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전혀 모르던 것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를 해 왔던 터라 처음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친구들과 예본 찬양대에 들어갔다. 내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들어갔지만 찬양이라고 하기엔 거의 형식적이었다. 예전에는 그냥 노래하는 기분으로 찬양했었는데, 예본찬양대에 들어가서는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토요일에도 연습이 있었고, 주일에는 예배를 두 번이나 드렸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혼나기도 많이 혼났다. 찬양대로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몸이 많이 피곤했다. 하지만 그냥 '해왔던 거니까' 하면서 버텼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이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찬양을 하다보니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게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러면서 단지 형식적으로만 찬양을 하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고 주님께 조심스럽게 회개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찬양대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었다' 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 말을 듣고 큰 책임감과 함께 내가 찬양대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했다. 그 이후로는 찬양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많은 무리 중에 주님께 찬양하는 지체이다. 만약 찬양하는 자가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찬양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죄일 것이다.

나는 언제나 기도한다.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해 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길 원한다.

악기로 찬양할 십자가

고 혜 진 (고등부, 예본 오케스트라)

예배의 본이 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나는 예본 오케스트라에서 플룻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성가대가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나는 그 속에서 악기로 영광 돌린다.

악기로 찬양하다 보면,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미 걸으신 그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걸으라 하신다. 나의 의지로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울 때,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기쁨을 맛보시길 원하게 되며, 구주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았음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을 수 있길, 그리고 주님께서 찾도록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악기로써 진정으로 찬양하길 기도한다.

토기장이와 토기

성경과 화합2

작년 여름, 한 크리스천 청년이 인터넷에 '스님과 수녀가 함께 자전거를 타며 화합을 이루는 광고가 있는데, 교회는 이기적이라 이 화합의 장에 참여할 수 없을 것'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 글을 올린 사람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성도는 그 누구와도 자전거를 같이 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의 방법에 동의할 수는 없다.

성경은 성도가 화평케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하나님은 화평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고전 14:33).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화평과 화합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화평케 하는 데 있다. 예수님은 우선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인간은 다른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 주님의 십자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늘의 모든 것들과 땅의 모든 것들이 화평을 이루게 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사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이 화평을 이루는가? 바로 십자가이다(골 1:20). 성도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국한 되는 자들이 아니다. 시공간을 뛰어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스님이나 수녀와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들과 자전거를 같이 탄다면 그 이유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함으로 그들을 진정한 화평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지 그들과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대한 타협을 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다.

성경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연합하지 않는 것이 속이 좁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리고 인간들만의 화합을 꿈꾸는 인본주의적인 본능에서 나온 발상이다. 그들에게 진실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화합하면 당장은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에게 진정한 화합을 숨기는 꼴이 되니까. 다만 전정한 화평을 전하는 방법이 전쟁이나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화평의 핵심인 십자가에는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온유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당신의 자전거 뒷좌석에 스님과 수녀를 태우라. 그리고 십자가의 진정한 화평을 전하라. 하지만 목적을 잃지 말라. 당신의 화합의 목적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지 그들과 친해지기 위함이 아니다. 후자가 목적이 되면 결국 당신은 처음에 언급한 한 청년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권요셉)

장학생 인터뷰 4

1. 천국일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천국일꾼이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준다는 의미에서의 봉사라는 생각보다 천국일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므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의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과의 교제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주님의 제자로서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히, 봉사를 하다보면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고, 그저 그냥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곧 교만해집니다. 항상 주님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3.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은?

최근 고등부 예배 설교시간에 들은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둘로스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둘로스는 헬라어로 가장 낮은 자, 즉 '종' 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일꾼은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김신영 (고등부)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우리 교회 솔로이스트들은 찬양대 합창 뿐 아니라 예배 전 찬양, 헌금 찬양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솔로이스트들을 찾아가 찬양으로만 듣던 그들의 간증을 대화를 통해 나누고자 한다.

1. 특별히 사모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를 가장 좋아합니다. 2절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는 구절에 특히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4절에서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언약' 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즐겨 찬양합니다.

2. 평소 찬양연습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악은 몸이 악기인데, 직업상 늘 분주하여 몸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준비할 때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참된 신앙고백이 되도록 가사를 묵상하고,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흥얼거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는 시편 62편의 말씀처럼, 부족한 저의 모습 그대로 만나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이 상 민 집사
아멘 찬양대 솔로이스트

3. 기도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 주님을 참된 믿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요사이 새로 시작한 일로 힘들지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엄혜원 기자)

다음 주일 찬송

130장 "왕되신 우리 주께"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의 행렬 찬송으로 널리 사용되는 찬송이다. 이 찬송가는 821년 오린스의 주교였던 성 데오둘프(St. Theodulph)가 작시하였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 해 종려주일에 신앙이 독실했던 루이 1세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종려주일을 즐기며 성직자들과 신도들의 행렬 속에 끼어 함께 행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감옥에 갇혀 있던 데오둘프가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한다. 그 곳을 지나가던 왕이 찬송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아 그를 석방시켰고, 다시 주교직위로 복귀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년 종려주일에 행진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도록 명했다. 이 찬송가의 곡은 1615년에 멜키오르 테쉬너(Melchior Teschner, 1584-1635) 목사에 의하여 작곡되었다.

1절 왕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옛날에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2절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온 천하 백성들이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3절: 주 고난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나귀새끼를 타고 겸손히 오시어 승리의 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한 무리들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메시아 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09	최순임	1	장년2부	
310	김현정	2	청년2부	
311	김광순	2	장년1부	김장성(2)
312	윤경희	2	대학부	
313	하윤애	7	장년3부	이상금(17)
314	정인귀	8	장년1부	안금자(2)
315	전형식	8	청년2부	김명선(4)
316	김미현	8	청년2부	김명선(4)
317	허옥선	8	소망부	
318	장용자	8	장년2부	
319	최명환	9	청년2부	정원근(12)
320	박종원	9	청년2부	정원근(12)
321	심오섭	11	장년3부	문승용(12)
322	이미자	11	청년2부	현의자(14)
323	기호천	12	청년2부	김문자(12)
324	이청호	13	소망부	김영옥(13)
325	박정인	13	대학부	
326	오도자	14	소망부	이혜선(14)
327	양미자	14	청년2부	이영환(2)
328	양미숙	14	청년2부	이영환(2)
329	김종일	16	장년1부	김금자(16)
330	서인숙	17	장년2부	박윤식(8)
331	최태욱	17	청년1부	박윤식(8)
332	김연한	17	장년2부	김금숙(17)
333	양영숙	18	외선부	윤정미(8)
334	유윤호	19	청년2부	정재영(17)
335	차태헌	19	청년2부	박윤식(8)
336	김정호	19	청년2부	임현주(6)
337	김정호	19	청년2부	
338	이지영	19	청년2부	이지현(14)
339	성은미	19	대학부	홍혜숙(17)
340	이 준	19	대학부	장득경(4)
341	전세음	19	고등부	
342	양효진	19	고등부	최유환(3)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양호실

1교구 테혜란 4구역 **임재정(남)** 최화자 성도의 시동생으로 오토바이 사고로 발가락이 심하게 다쳐 이식수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낙관적이었으나 아직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나아서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최화자 성도의 간호와 전도로 임재경씨의 어머니(최화자 성도의 시어머니)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나, 임재경씨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화곡 1구역 **이미나(여)** 급성 임파선 백혈병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며, 백혈병이 치료가 됐었으나 재발해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완전히 회복하고 장성하여 천국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구역탐방

빛의 자녀

5교구 개포 1-1구역 / 구역장 전재숙 집사

구역장은 '세상에 속한 것은 대부분 맛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변명을 하면서 여기에 동참한다. 우리도 여기에 동참한 적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자' 며 생각할 것을 던져주고, '우리는 여기에 참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책망해야 할 것이다. 책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책망으로 도전을 주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책망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도전받고 빛의 자녀답게 되어야 한다' 고 말씀을 이어갔다. 이 말씀에 대해 권사님은 '빛을 비추는 것은 말뿐 아니라 행위로도 보여줄 수 있다. 내가 죽어 변해야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다. 내가 부인되지 않고 하는 책망이 가치가 있을까? 내가 죽어야 올바른 책망이 나온다' 고 했다.

그럼, 이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성도는 '예수님의 빛을 알기 전에는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행동을 하면 찔린다' 고 했다. 그렇다.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빛을 모르니까 어둠이 어둠인지 모른다. 그러나 빛을 받고 나면 어둠을 인식하여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것이다. 또 다른 성도는 '나도 잘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 명성, 쾌락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었다' 고 고백하고, '이 빛은 사람의 어떤 공로로도 비춰질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이 빛을 비춰주신다' 는 것을 강조했다.

빛에 대하여 듣고 어둠을 알아 그 어둠을 이기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다. 이 축복을 내 안에만 간직할 것인가?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 이 빛을 나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 빛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사람은 그 빛을 거부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아예 숨겨버리지는 않는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자. 처음엔 눈이 부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진통을 겪고 나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권요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문 영 광 (소년부 면려회장)

하나님의 뜻은 참 놀라운 것 같다. 요나처럼 도망다니던 나를 하나님께서 면려회 장으로 일하게 하셨으니. 엄마와 아빠는 내가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셨지만, 연습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기로 했다.

동생이 초등부 성가대에서 봉사해서 나도 아침 일찍 교회에 와야 한다. 그래서 예배시간까지 1시간 30분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선생님과 부모님의 권유로 9시부터 시작하는 성경공부반에 들어갔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참 기쁘고 재미있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신 것 같다. 성가대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빠져 나왔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면려회장으로 일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소년부 면려회장으로서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맡겨주신 회장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

요즘은 교회생활도 정말 신나고 재미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재미있고, 하나님이 내편이 되어 주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신난다.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소년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려고 한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진리의 샘

고린도 후서(2 Corinthi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린도전서가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교훈한 서신이라면, 고린도후서는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말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린도교회에 첫 번째 서신을 보내고 난 후, 고린도교회는 또 다시 그의 가르침과 인격 그리고 그의 사도직의 동기에 대해 논란을 벌였고, 이것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과 '사도직에 대한 진실'을 변증하기 위하여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13장에서는 강력하게 자신에 대해 변호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회심시킨 자들이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재확립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적한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고후 11:22), 팔레스틴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팔레스틴 밖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등이 바울과 대립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를 읽으실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실 것은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외적인 형편 때문에 사도성에 대해서 몹시 비난을 받았습니다. 즉 그는 몸이 연약했고(고후 10:10), 말이 미숙하였으며(고후 11:6),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고후 12:7), 사람들의 눈에 사도성에 대하여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이 연약하다는 비난에 대하여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하였으며(고후 1:12),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고 하였고(고후 10:3),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고후 10:4),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움을 입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고후 4:16). 또 사도 바울의 말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변호합니다(고후 11:6).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복음의 위대한 역설로 반응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9~10). 이처럼 고린도후서를 읽으실 때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사도직의 정통성의 문제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 변호하려는 것은 결코 자기의 명예나 유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강력하게 변호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바울의 사역과 사도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일 바울이 행하는 사역과 그의 사도성에 대한 거짓된 비난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못 성도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도 거짓이라고 여길 것이 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열정적이고 강렬한 어조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과 사도성의 진실을 당당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면서 복음의 사역자가 직면하게 될 도전이 무엇이며, 복음의 사역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복음의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 그리고 확신은 무엇인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하 목사(출판국 지도)

아브라함의 믿음

손 송 이 (소년부 진리1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불신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느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예쁜 아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누가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두 왕 모두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 했으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재물과 아내를 돌려 주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걸 알고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늙어서도 자식을 못 낳게 되자 시종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은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매우 예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집안이 힘들거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가서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고 믿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믿음이 더 커지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게 필요한 주님의 십자가

직장의 한 선배에게서 한 편의 글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글은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아 힘든 업무로 그냥 주저앉고 싶은 나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던 그분의 솔직한 심정이 저에게 주님의 자비를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그래서 십자가 안에서의 놀라운 은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지없이 하루의 해가 솟았습니다. 어제의 괴로운 마음 때문에 잠을 조금밖에 못잤습니다. 저녁을 일식집에서 술과 곁들여 맛있고 재밌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풀었지요. 그러나 나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여미어왔고 후회막심하였습니다. 정말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지난주일 설교 본문이 레위기였습니다. 설교 중에 한 남자 집사님이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회생활 가운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죄악된 자기의 모습을 되새기며 흘렸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절제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 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죄 가운데 같이 묻어서 살아가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믿지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병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정말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매순간 의탁하지 못했던 제 모습과 주님의 손에 나 자신을 의탁하지 않을 때 넘어져 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너무나 갈급한 하루하루를 살기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십자가를 통해 죄된 나 자신을 잘 보게 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십자가가 내게 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권향임 기자)

교회소식

알림

1. 제2차 학습 · 세례식 안내
2003년도 제2차 학습 · 세례식이 27일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 · 입교 · 개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담당교역자에게 13일(다음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1. 권사 1지회 월례회
일시 : 9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 영아부실
2. 경찰전도회 4월 월례회
일시 : 13일(다음주일) 15:30
장소 : 베다니홀
3. 안수집사 월례회
일시 : 오늘 15:30
장소 : 교육관 201호

결혼

1. 김동진 군과 한영희 양(한인호 집사, 김정환 집사의 딸, 9교구)/ 11일(금) 미국 LA
2. 한재일 군(한성원 집사, 송행자 집사의 아들, 5교구)과 김정란 양(김형열 집사, 소공례 권사의 딸, 삼광교회)/ 12일(토) 15:30, 군인 공제회관 3층 "밀레니엄홀"(3호선 도곡역 4번출구)

별세

1. 김정헌 씨
정태순 집사의 시부, 8교구/ 3월 26일 별세, 3월 28일 장례
2. 김옥순 성도
서정헌 집사의 장모, 정경원 집사의 모친, 12교구 문촌2구역/ 4월 2일 별세, 4월 3일 장례
3. 박화희 타교권사
양승남 권사의 친정모친, 최정남 안수집사의 장모, 8교구 성수1구역/ 4월 2일 별세, 4월 4일 장례

주소변경

1. 장명자 전도사 서울 광진구 구의1동 222번지 33호(2층) ☎2201-3036

직원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동산 산역관리인(숙식제공)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기도의창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⑥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감사위원회 전반기 회계감사 실시

1. 기 간 : 2003년 3월 ~4월
2. 대 상 : 각 부서 회계(전도회 제외)
3. 장 소 : 감사위원회(교육관 302호)
4. 준비서류 : 시산표 (2002년 12월, 2003년 1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통장

2003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4월 13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김익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김교성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50	기독론 (이성욱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위건량 목사)	교육관 304호		
4월 20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고광환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란? (이수근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란? (안창덕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4월 27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7(월)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주일)
설교자/기도자	여성기/박홍규	여성기/박병택	여성기/진학래	여성기/최만우	여성기/손기현	이수근/김말자	정진호/안태순

예배 담당안내 (4/9~4/13)

날짜	예배	예배 전 찬양	사회	기도	설교
4/9	수요 I		이종대	구영자	그리스도의 제자(마 10:32-39) 김성관 목사
4/9	수요 II		여성기	김영수	선택(엡 1:4) 정현민 목사
4/11	금요집회	특별찬양(바이올린 이에스더/안수집사 중창단/사랑부 교사 찬양대)	고광환		김성관 목사
4/13	주일 I		장 훈	황의만	진리와 함께 행하는 자(요일 2:1-6) 고광환 목사
4/13	주일 II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외/김희숙 집사, 김예숙 집사 가족	정진호	김단용	예수님처럼 행하라(요일 2:4-6) 김성관 목사
4/13	주일 III	예수 나를 위하여 외/이경재 집사 가족	김동하	전홍렬	예수님처럼 행하라(요일 2:4-6) 김성관 목사
4/13	주일 IV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외/바리톤 서준성(가브리엘 찬양대 지휘)	이성욱	이 훈	예수님처럼 행하라(요일 2:4-6) 이종철 목사
4/13	주일 V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외/소프라노 이하나(벧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류병희	최윤덕	읽어 들린 말씀(느 8:1-12)안창덕 목사
4/13	주일찬양		김교성	표왕렬	그리스도의 행진(마 21:6-16) 김성관 목사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10:50	교육관 110호
유아부	I 오전 9:00 II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I 오전 9:00 II 오전10:50	제2교육관 1층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중등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등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등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청년1부	오전11:0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2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장년1부	오후12:30	교육관 507호
장년2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장년3부	오후12:30	교육관 307호
소방부	오후12:15	갈릴리홀
신혼가정부	오후12:15	교육관 204, 205호
사랑부	오전11:00	복지관 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9:00(학생)/오후1:00(성인)	교육관207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릴리홀, 베다니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 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멘홀
충현선교훈련	오후 6:10	갈릴리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

기도원 안내

집회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오후 10:30	금요집회 후 본당 앞 출발

기도원 차량 운행
월, 목 오전 10:00 / 월, 화, 목, 오후 7:00
(동문경비실 앞 출발)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장 / 김은호 7교구장 / 노광헌 당회 서기 / 오진국 예배위원 / 이병학 교구위원장
최대원 예배위원장 / 엄필성 제3교육위원장 / 강모용 구제부장 / 이 훈 찬양위원장 /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정운석 8교구장 / 김영길 봉사위원장 / 조인제 봉사위원 / 김종구 충현기도원감 / 최무길 건축위원
김천채 1교구장 / 이창호 사랑부장 / 차신득 법인운영위원 / 김광남 전도위원장 / 이종석 기획위원장
이병옥 감사위원장 / 안종욱 탁아부장 / 임무천 건축위원장 / 최기홍 예배부장 / 이갑재 15교구장
진홍용 행정위원장 / 전홍렬 직능전도부장 / 이정우 건축위원 / 김단용 14교구장 / 황영일 건축위원
한송규 신혼가정부장 / 김영수 선교위원 / 김환기 9교구장 / 원웅철 제1교육위원장 / 이형수 당회부서기
안동현 차량안내부장 / 황의만 소망부장 / 김구형 제2교육위원장 / 최윤덕 임마누엘찬양대장 / 이계인 예현찬양대장
박덕양 새가족부장 / 이태식 청년2부장 / 정태두 봉사위원 / 박홍규 가브리엘찬양대장 / 권명옥 전도위원
조종환 에바다부장 / 배춘식 13교구장 / 김영달 사무국장 / 이실호 제1교육위원 / 박찬섭 제1교육위원
최지윤 장년1부장 / 노영한 3교구장 / 박철구 전도위원 / 정청길 예배위원 / 신상수 예배위원
강철형 예배위원 / 고제승 청년1부장 / 김영은 행정위원

■ 부목사

이종대 소망부 / 정현민 교구위원회 / 김동하 기획위원회 / 서광진 5교구 / 박인기 에바다부
여성기 3교구 / 류병희 대학부 / 이종철 선교위원회 / 김영훈 9교구 / 여국근 2교구
김교성 11교구 / 이수근 4교구 / 이유진 14교구 / 안창덕 16교구 / 방준영 8교구
나광영 6교구 / 정진호 7교구 / 김용덕 15교구 / 이성욱 10교구 / 고광환 1교구
김황곤 외선부 / 위건량 12교구 / 김익환 13교구 / 김정수 고등부 / 장 훈 소년부
임현덕 17교구 / 이희식 중등2부 / 최종철 중등1부 / 하종철 17교구 / 안치원
이태복 / 정충신 / 양재웅

■ 전도목사 이정철

■ 여전도사

정연희 9교구 / 신동자 4교구 / 윤인숙 3교구 / 한영준 12교구 / 김연식 17교구
홍순애 10교구 / 이옥주 6교구 / 김말자 5교구 / 안태순 8교구 / 김정연 13교구
조옥자 7교구 / 강덕필 16교구 / 김정신 14교구 / 장혜구 2교구 / 최문실 11교구
전은희 17교구 / 김영순 1교구 / 김정자 15교구 / 이수경 19교구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전임독창자 김소연

■ 단기선교사 강기엽(스리랑카)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